

(주)금복주



양준혁 씨

심후섭 씨

박경숙 씨



박대성 씨

김태욱 씨

금복문화상 6개 부문 수상자 선정

금복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구)은 제24회 금복문화상 6개부문 수상자를 10월 26일 선정하였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심후섭(문학 부문) 대구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을 비롯, 박경숙(음악 부문) 계명대음악·공연예술대 초빙전임강사, 박대성(미술 부문)한국화가, 김태욱(사진 부문)대구사진문화연구소장, 경북대사대부고 배구부(사회공헌 부문), 양준혁(사회공헌 부문)전 프로야구선수 등 모두 6명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각 1,000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화랑’, G20재무장관회의 건배주로 사용

금복주의 ‘화랑’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만찬에서 건배주로 올랐다.

화랑은 100% 우리나라 최고급 찹쌀만을 엄선, 순수전통 누룩만을 발효제로 사용해 150일간 정성으로 빚은 프리미엄 순미주다.

대구경북 183개 고교에 장학금 6,000만원 지원

금복주가 9월 29일 대구·경북지역 183개 고등학교에 3/4분기 금복장학생 장학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금복주는 금복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대구·경북지역 180여개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음식업 종사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금복주의 사회공헌활동은 창립 30주년인 1987년 금복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본격화 됐다.



대선주조(주)



‘독도는 한국 땅’ 소주 출시

대선주조(주)대표이사 주양일이 11월 17일 ‘독도소주’를 출시, 부산·경남 지역 주요업소에서 한정판 300만병 판매를 시작했다.

독도소주는 시원소주의 보조상표를 활용,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Dokdo is Korean territory)’ 포스터로 제작한 한정판이다. 이 포스터는 2005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뉴욕타임스 사회면에 실어 세계적인 관심과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이번 독도소주 출시는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학생들이 대선주조에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다.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대학생 ‘봄봄 마케팅전략 공모전’ 수상자 발표

대선주조는 10월 27일 ‘봄봄 마케팅전략 공모전 결선 발표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대상의 영예는 봄봄에 대하여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 경성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조아람 씨와 서정주씨가 차지해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최우수상은 동서대학교 마케팅학과 ‘상상연구실팀’과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TrueBomb’ 2팀에게 돌아갔으며 1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우수상 3팀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시원공익재단, ‘시원장학금’ 3,500만원 전달

대선주조의 시원공익재단(이사장 : 김기춘)은 8월 27일 대선주조 공장장에서 ‘2010년 시원공익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부산지역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올해는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 동의대 등 부산지역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47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3,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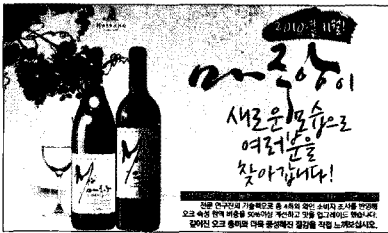
(주)롯데주류BG



5천만불 수출탑 수상

롯데주류BG(대표이사 김영규)는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 47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5,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롯데주류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일본용 제품인 '경월그린'을 비롯해 처음처럼, 청하, 인삼주 등 5,600만 달러 규모의 우리 술을 수출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새로운 '마주왕' 출시

롯데주류는 오크통에서 숙성한 원액의 비중을 올려 주질을 개선하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도수에 한글서체를 라벨에 적용한 새로운 '마주왕' (레드, 화이트 2종)을 11월 16일 출시했다.

새 마주왕은 종전 제품보다 오크통 숙성원액을 50% 이상 늘려 주질을 향상시키고 풍미를 더했다.

알코올 도수도 기존 12.5도(레드)와 11도(화이트)에서 두 제품 모두 13도로 높였다. 출고가격은 레드 1만2,800원, 화이트 1만800원이다.

'처음처럼' 5년만에 디자인 변경

롯데주류는 10월 25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맞게 '처음처럼' 병을 공용화 병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병에 맞춰 라벨과 병목 부문에 태그를 붙인 제품을 생산하였다.

새 디자인의 처음처럼은 병목이 짧고 몸통이 길었던 기존 병 모양 대신 다른 소주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병목이 길고 몸통이 두꺼운 모양으로 만들었다. 병 라벨에 쓰는 서체도 더 굵고 크게 디자인해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병 모양은 타사 제품과 통일시키지만 제품 차별화를 위해 병목에 모델 이효리 사진과 '흔들어라 더 즐거워진다'는 슬로건이 담긴 종이 태그를 달았다.

처음처럼 변경전



처음처럼 변경후



(주)무학



기업혁신 대상 우수상 수상

(주)무학(대표이사 최재호)은 1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17회 기업혁신 대상'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1929년 설립한 무학은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주류제조업체로 1965년 처음으로 현대적 소주생산 시설을 갖췄다.

무학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영혁신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고도화해 부산시장 점유율 확대와 대전 등 신시장을 개척을 통해 국내 제1의 주류 회사로 키워 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꾸어 향후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해 세계의 주류회사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회장, 한국마케팅 CEO대상

무학 최재호 회장이 한국마케팅 CEO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마케팅학회(회장 부경대 전종욱 교수)는 10월 30일 부산시 남구 부경대 미래관에서 '2010년 마케팅 추계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재호 대표이사는 탁월한 경영능력 및 창의적인 마케팅역량으로 우수한 제품력, 친환경적인 생산성, 기술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무학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시스템으로 현재의 무학의 성공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마산시 육상경기연맹에 특별후원금 전달

마산시 육상경기연맹 최재호 회장(무학 회장직 겸임)은 2010년 7월 30일 열린 퇴임식 행사에서 퇴임과는 별개로 향후 통합 창원시 육상경기연맹(가칭)의 발전과 선수 경기력 향상 및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해 하계훈련비를 포함하여 3,000만원의 특별 후원금을 마산시 체육회에 전달하였다.

보해양조(주)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건우)는 지난 11월 23일 전남대에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한재 보해양조 전무와 심사위원장인 정희동 커스트머인사이트 대표가 수상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예비 대학생들에 주도(酒道)강의

보해양조는 수능시험을 마친 광주상일여고 수험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22일 보해장성공장에서 올해 첫 주도(酒道)강의를 실시했다. 강의는 '건전한 음주문화와 예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보해는 예비 대학생들에게 술자리 매너에 관해 소개한데 이어 올바른 음주문화와 음주예절, 술에 관한 상식들을 상세히 알려줬다. 주도강의는 오는 12월 1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여행 레저용 주류 '보해 복분자 포켓' 출시

보해양조는 여행과 레저활동이 증가한 점을 착안,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200ml 페트의 '보해 복분자 포켓'을 10월 25일 출시하였다.

'보해 복분자 포켓'은 100% 국내산 복분자로 만든 보해 복분주자의 프리미엄 속성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한 소용량 제품으로 음용시 부담감을 낮추었다. 페트 재질이라 휴대는 쉽고 파손의 위험은 적어 가정은 물론 야외에서도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복분자주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제품으로 출고가는 2,100원이다.

(주)선양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강연 - 술 예절 강연

(주)선양 김광식 대표이사는 11월 22일 아산고등학교 강당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술' 예절 강연을 하였다.

'술! 어이할꼬?' 로 시작된 강연은 수능시험으로 지친 고3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달여 남짓만 있으면 음주가 가능한 성인이 되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광식 대표이사는 "고3수험생을 위한 '술 예절' 강의는 아산고등학교를 필두로 온양고, 온양한울고, 온양용화고등학교로 이어질 계획"이라고 하였다.



국제라이온스협회 대전·충남지구 업무협약

에코원 선양회장 조웅래)과 국제라이온스 대전·충남지구(총재 김주승)는 10월 27일 서구 오동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라이온스협회 대전·충남지구는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전·충남 대표 향토기업인 에코원 선양과 제일 먼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국제라이온스 356-B지구 김주승 총재, 에코원선양 김광식 사장.



조웅래 회장, 市에 복지성금 1억원 기탁

대전시는 12월 3일, 8일 시청 응접실에서 영홍철 대전시장과 (주)선양 조웅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성금 기탁행사를 가졌다. 조 회장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2회에 걸쳐 기탁했다.

대전시는 기탁된 성금으로 지역의 독거노인 2만 3,000여 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1,250세대에 쌀 20kg씩을 전달하는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진로



15.5도 저도 소주 '즐거찾기' 출시

(주)진로(대표이사 윤종웅)는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음주문화를 반영해 알코올 도수 15.5도의 저도 소주 '즐거찾기'를 12월 6일 출시하였다. 국내에서 알코올 도수가 가장 낮은 이 제품은 취하기 보다 술자리 자체를 즐기는 20~30대 젊은층을 겨냥한 제품이다. 알코올 분해에 도움을 주는 알라닌, 아스파라긴, 글리신, 글루타민, 메티오닌 등 5가지 아미노산과 핀란드산 결정과당을 첨가해 편한 맛, 편한 목넘김, 편한 뒷맛이 특징이다. 출고가격(360ml)은 845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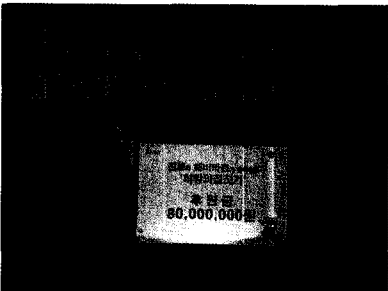


'참이슬'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참이슬'이 11월 1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으로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앞장서는 제품을 선정, 인증하는 제도이다.

진로 '참이슬'은 지난 4월부터 탄소 데이터 수집 기간을 거쳐 탄소성적표지 인증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희망의 집짓기 8,000만원 전달

진로는 9월 7일 서초동 본사에서 한국 해비타트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희망의 집짓기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 진로는 이날 협약식에서 임직원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진로는 '대학생 두꺼비 봉사단' 50명을 모집한다. '두꺼비 봉사단'은 10월 13일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건축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및 추억의 밤 행사 등 다양한 체험과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 충북소주



충북소주, 자매결연 마을에 찹쌀 전달

(주)충북소주(대표이사 장덕수)는 11월 30일 '농촌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음성군 소이면을 찾아 찹쌀 350kg과 '시원한 청풍 소주' 35 상자 등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전달된 찹쌀은 충북소주가 지난 3월 임대한 논에서 직접 재배·생산한 것이라 의미를 더했다.

장덕수 대표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농촌사랑 운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 연탄 배달

충북소주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은 11월 11일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일대 저소득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들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 연탄 1만장을 기탁하기도 했다. 장덕수 대표는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향토기업으로 이웃과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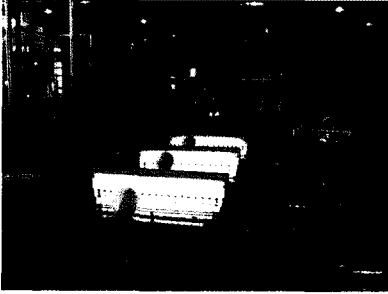


세계조정대회 성공 기원 2억원 기부

충북소주와 충주시는 8월 23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오후 5시 충주시청에서 장덕수 대표는 우건도 충주시장과 협약을 맺고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위해 2013년까지 해마다 5,000만 원씩 모두 2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주)보배



전북 자도소주 '보배로' 홍보·판매촉진 캠페인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이사장 이연택)는 1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전북도 자도주인 '보배로' 소주 홍보·판매 촉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월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1년도에는 나머지 시·군에서도 확대해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의 일환으로 전북의 자도주인 (주)보배(대표이사 윤기노)의 지역상품 홍보 및 판촉 캠페인을 통한 불우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병마개1개 200원 불우이웃

정읍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15일까지를 (주)보배의 신제품 '보배로'의 병마개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민들이 음용한 '보배로' 병마개를 각 주민센터 및 읍·면에 비치된 수거함(업체에서 제작)에 모으면 수거량에 따라 병마개 1개당 200원씩을 보상, 올해 말 주민센터가 필요한 생필품(라면, 휴지, 세제, 연탄 등)을 구입해 저소득가구에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한라산



'제주광어'와 '한라산 소주' 공동 마케팅 실시

9월 8일 제주광어브랜드육성사업단과 (주)한라산(대표이사 현승택), 제주 어류양식수협이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광어 홍보 보조상표를 부착한 한라산 소주를 15일부터 출고하기로 했다. 제주광어 홍보 보조상표는 제주광어브랜드육성사업단과 한라산이 협의·제작한 것으로 모두 200만병에 부착돼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에 앞서 (주)한라산은 지난 7월 '화산이 빛은 제주도 지질공원' 문구가 들어간 보조상표를 부착한 일명 '제주 지질공원 소주' 100만병을 만들어 출시하기도 했다.

오비맥주(주)



수험생 음주 예방 캠페인 벌여

오비맥주(주)(대표이사 이호림)는 11월 18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탈선과 음주 예방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봉사단원들은 변화가로 나온 청소년들에게 "당당해야 제 맛, 청소년들이여 성년이 되어 진짜 즐겨라!"는 홍보 문구가 새겨진 휴대폰 액정클리너를 나눠주며 올바른 음주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벌여

오비맥주 건전음주문화봉사단원들은 11월 8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위치한 S-OIL 주유소에서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원, S-OIL 직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주제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속도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해를 알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에 인재육성 장학금 869만원 기탁

오비맥주 성훈 이천공장장은 10월 22일 이천시청을 방문해 카스 판매 수익으로 조성한 장학금 869만원을 조병돈 이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오비맥주는 2009년 8월 이천시청과 업무제휴를 맺은 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매 분기별로 전달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3천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 지역 우수 인재 발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트맥주(주)



‘하이트와 함께하는 서우 팬 사인회’ 진행

하이트맥주(대표이사 이장규)가 11월 21일 부산지역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부산 서면 밀리오레에서 ‘하이트와 함께하는 서우 팬 사인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팬 사인회는 하이트맥주가 지난 10월 전북대에서 진행했던 ‘조권 갑춘 콘테스트’에 이은 두 번째 ‘소비자와의 만남’ 행사로 부산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현장에서는 즉석에서 소비자를 모집해 끼와 매력을 겨루는 ‘서우의 마음을 뺏어봐’ 콘테스트가 진행됐다.



아시아 패키지 디자인 콘퍼런스서 ‘드라이피니시 d’ 우수작 선정
하이트맥주의 ‘드라이피니시 d’(사진)가 ‘제2회 아시아 패키지 디자인 콘퍼런스’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패키지 디자인 콘퍼런스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4개국의 패키지디자인협회가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 5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규모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행사 규모에 걸맞게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총 16명의 심사위원을 초빙해 우수작 3점을 선정했다.



2010 포뮬러원 월드챔피언십 기념 시음행사

하이트맥주가 2010 포뮬러원 월드챔피언십 한국 그랑프리(이하 F-1)을 기념하는 축제가 진행되는 전라남도 목포 평화광장 현장에서 시음 행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하이트맥주가 국내 최초로 열리는 F-1 그랑프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진행한 이벤트로 F-1 그랑프리 기간인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진행됐다.

롯데칠성음료(주)



국립공원 환경정화활동 나서

롯데칠성음료(주)(대표이사 정 황) 임직원들이 지난 2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체결한 '국립공원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활동' 후원 협약 일환으로 매월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협약 실천을 위해 지난 5월15일 4,800여명의 직원이 국립공원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를 시작으로 매월 주말을 이용해 북한산과 도봉산 국립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해오고 있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협력업체인 청암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황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관련 임원진과 함께 음료 포장용 필름을 공급하고 있는 청암산업을 방문해 작업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협력업체로서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력과 개선을 약속했다.



롯데칠성 몰트위스키 출시

롯데칠성음료는 '스카치블루 싱글몰트'와 '스카치블루 블렌디드몰트'를 출시했다. 롯데칠성은 스코틀랜드에서 12년간 숙성된 몰트위스키 원액을 수입해 부평공장에서 몰트위스키 2종을 생산한다. 새로 출시된 몰트위스키는 기존 위스키 상품 '스카치블루 인터내셔널'과 같은 모양의 병에 담겨 판매되며 위조방지장치인 DNA시스템을 장착했다. 가격은 500ml 병 기준 싱글몰트 4만6200원, 블렌디드몰트 3만9600원이다.

디아지오 코리아(주)



조니워커, 5억 원 꿈의 기금 '킵워킹펀드' 론칭

디아지오코리아(대표이사 김종우)의 조니워커가 지난해에 이어 대한민국 성인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는 5억 원의 꿈의 기금 킵워킹펀드 2기 도전자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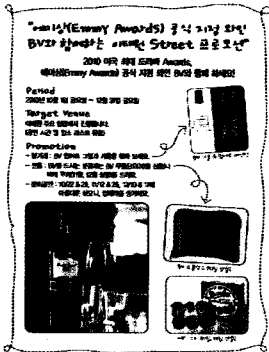
킵워킹펀드는 만 20세 이상 성인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꿈 콘테스트로, 내부심사, 네티즌 투표, 외부심사위원 면접을 통해 최종 5인의 꿈과 도전을 선정하여, 2년간 총 5억 원을 지원하는 꿈의 기금이다.



프리미엄 럼, 자카파 2종 선보

디아지오코리아는 럼 최초로 국제 럼 페스티벌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최고급 프리미엄 럼 자카파 2종(자카파23·자카파 XO)을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럼 자카파 2종은 여러 번 설탕을 추출한 후 잔류물로 제조되는 일반 럼과 달리 한 번도 설탕을 추출하지 않은 '버진 사탕수수 허니'를 원료로 만들어진다. 자카파는 주요 호텔 바 그리고 고급 와인숍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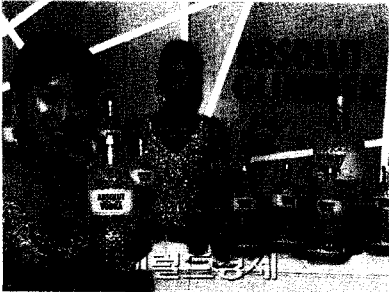
에미상 공식와인 소비자 프로모션 실시

디아지오코리아가 미국 최대 드라마 어워즈인 2010년 에미상(Emmy Awards) 공식 지정 와인으로 알려진 보리우 빈야드(Beaulieu Vineyard, BV)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서울 이태원의 유명 레스토랑(마이타이, 마이 차이나, 마이 첼시, 방갈로, 쿠치나야카, 오우, 블리스)에서 보리우 빈야드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무릎 담요와 버터 쿠키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주)

www.pernorica.com



'애플루트 글리머' 한정판 보드카 출시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이사 프랑크라베르)는 12월 1일 부터 연말까지 12월 한달간만 판매할 리미티드 에디션 '애플루트 글리머'를 출시했다. 750ml 용량인 이 제품의 가격은 1병에 3만2800원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애플루트 글리머'는 12월 1일부터 전국 유명 백화점 및 대형 할인 마트,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편의점을 통해 거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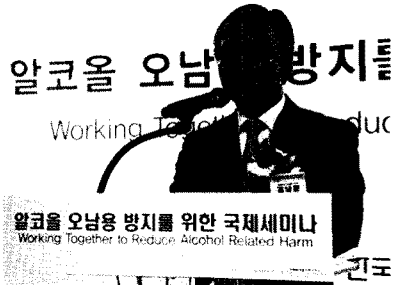
위스키 '임페리얼19 퀀텀' 출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11월 16일 오크통에서 19년 이상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사용한 신제품 '임페리얼19 퀀텀'을 출시했다. 임페리얼19 퀀텀은 최신 유행을 추구하면서도 자신만의 취향과 스타일을 지닌 30-40대를 상징하는 '위버스타일(Uber Style)'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설명했다.



'더 글렌리벳 25년' 출시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12월 6일 프리미엄 싱글 몰트 위스키인 더 글렌리벳 25년(The Glenlivet 25yo)을 국내에 출시하였다. 더 글렌리벳 25년은 '싱글몰트 위스키의 효시'라는 정통성 아래 4명의 마스터들의 완벽한 검증으로 탄생한 대작이다. '최상의 증류', '세심한 숙성 과정', '철저한 품질 관리', '최종 승인'이라는 4단계 주요 제조과정 단계를 책임지는 마스터들의 엄격한 승인을 거쳤다. 제품은 700ml 용량에 알코올 도수 43%이며, 롯데 백화점에서 75만 원대에 판매된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김남문 회장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김남문)은 11월 15일 리츠칼튼서울호텔 금강룸에서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ICAP: 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 미국 워싱턴 소재)와 공동으로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알코올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한 주류업계의 노력을 강화하고 국회, 정부, 보건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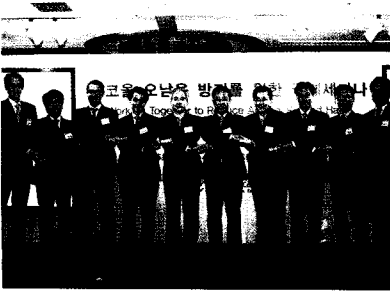


세미나는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 국제 보건계의 동향 및 주류업계의 역할 발표 2)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16개 주류제조업체 '광고자율규제협약 체결식' 3) 국내외 주류광고자율규제 추진방향 및 사례발표 4) 국내외 주류업계 알코올을 폐해감소 노력 사례발표와 마지막으로 국회, 정부, 학계, 사회단체인사가 참여하여 알코올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상호공동노력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왼쪽부터) 이종진 상무, 조성기 본부장, 김용석 교수, 김춘진 국회의원, 맹호영 과장

이날 세미나에는 주류제조업계, 주류유통업계, 주류수입업계 등 주류업계 관계자 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의 정부부처와 대한보건협회, 음주운전예방재단,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각계에서 140여명이 참가하여 알코올 문제예방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 뜻깊은 행사였다.



주류 광고자율규제 협약 체결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회원사 16개 주류제조업체는 11월 15일 지나친 광고로 인한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류광고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진로, 롯데주류, 금북주, 보해, 무학, 대선주조, 보배, 선양, 충북소주, 한라산 10개 소주제조사와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2개 맥주제조사, 페르노리카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 롯데칠성음료 3개 위스키제조사 등 국내 주요 주류제조업체 16개사가 참여하였다.

금번 체결된 협약에는 ① 청소년, 임산부 등 음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행위금지, ② 대학교 캠퍼스 및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광고금지, ③ 모든 주류광고에서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금지 ④ 미성년자 모델의 광고등장금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⑤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초청 주류업계 간담회 개최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1월 10일 서울팔래스호텔(3층 체리룸)에서 주류업계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주류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주류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주류업계가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김경희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이재균 사무관이 참석하였고 주류업계에서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주류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주류산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자유롭게 토론되었다.